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9호 【루계 제25442호】 주체105(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제강국건설의 전역에서 200일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위대한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한 일심단결용위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희망전역에서 단숨에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희망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장병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55동의 3층살림집들과 385동의 단층살림집들을 포함한 1 760세대의 살림집들과 10여개의 학교, 유치원, 탁아소, 진료소를 비롯한 공공건물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지붕목조공사와 외부미장을 와닥닥 해제낀 각급 부대들에서는 10월 24일부터 외장재칠하기와 색철판지붕씌우기공사에 일제히 진입하였으며 벽체내부미장과 천정미장을 각각 65%, 50%계선에서 추진하면서 세면장, 부엌타일붙이기와 창문달기, 계단공사, 주변정리 등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 힘있게 추진

희령시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부대들에서

오봉리와 송학지구, 유선지구를 비롯한 희령시의 10여개 지역들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이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벌어져 승리의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있는 이 자랑스러운 현실은 뜻깊은 력사의 땅에서 기어이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앞당겨 안아오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억센 신념의 발현이다.

희령시현장지휘부의 인민무력성 책임일군들은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전투가 마감단계에 이른 조건에 맞게 각급 부대들에서 군인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공세를 드세차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전투장마다에서 힘있게 울려퍼지는 예술선전대와 군악대의 기백이 넘치는 화선선동의 북소리는 마지막돌격전에 나선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책임일군들은 부대별로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군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도록 하면서 마감건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짜고들고있다.

오봉리의 3층살림집 55동과 여러 공공건물건설을 맡은 각급 부대들에서 방대한 골조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낀데 이어 내부공사와 주변정리전투에 력량을 총집중하면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감사를 받은 크나큰 영광을 가슴에 깊이 새긴 조선인민군 김동춘소속부대의 장병들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최전방에 서있는 부대답게 살림집완공의 봉우리에 제일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려는 불같은 일념을 안고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였다. 그들은 많은 량의 세멘트와 목재를 수송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140여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를 제일먼저 끝낸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외부미장작업을 와닥닥 해제낀데 이어 지금 내부마감전투를 다그치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주문진해전에서 영웅신화를 창조한 조선인민군 장춘원소속부대 장병들이 유서깊은 희령땅에서 부대의 전투력을 다시한번 과시할 만만한 투지를 안고 살림집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적함선을 향하여 돌입하는 어뢰정의 공격속도처럼 세상에 없는 복구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당백공격정신을 다시금 높이 떨치려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부대에서는 물전기재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자재보장을 앞세우는 한편 400여명의 미장공들과 500여개의 미장판, 미장칼을 선행보장하여 마지막결사전이 힘있게 전개되도록 하고있다.

중학교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궁호식소속부대의 장병들이 당의 믿음, 인민의 기대를 심장에 새겨안고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모든 군사정치일군들이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는 전투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병사들의 심장속에서 충정의 불길, 애국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부대에서는 공정별로 기술협의회, 공법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군인대중의 창의창발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고있다. 기초굴착공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17일만에 덩지큰 학교의 골조공사를 보란듯이 결속한 그들은 지금 내부미장전투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조선인민군 리철훈소속부대 장병들 역시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떨치고있다. 강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건설을 끝내자면 모든 사업을 예견성있게 립체적으로 벌리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지휘관들은 시작부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였다. 리성철, 박일남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건설물의 질을 높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보여주기와 기술학습을 통하여 지휘관, 군인들은 설계에 따르는 공법상요구를 깊이 파악하고있으며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선인민군 류화렬소속부대, 신봉철소속부대, 허상옥소속부대에서도 립체전, 섬멸전을 힘있게 벌려 살림집건설에서 사회주의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단층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안영식소속부대를 비롯하여 유선지구와 송학지구, 인계리에 전개된 각급 부대지휘성원들과 군인들도 자력자강의 기치밑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헤치며 전투과제를 일정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안영식소속부대에서는 유선지구의 여러 지역들에 책임성있고 전개력있는 지휘관들을 파견하여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부대가 단층살림집건설에서 희망시적으로 제일앞장에서 기발을 들고 나아가도록 하고있다.

송학지구에 전개된 각급 부대의 지휘관들도 제일 어려운 조건이지만 군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영웅적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공격정신에 의하여 유서깊은 희망땅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질 완공의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심장으로 받들고 총궐기해나선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북부전선에 많은 량의 세멘트를 생산하여 보내준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전달보다 높아진 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공정들에 만부하를 걸고 날마다, 시간마다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세멘트를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해주기 위하여 능력있는 일군들을 련합기업소에 파견하고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 증산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현장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으며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을 발동하여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세멘트생산성과이자 곧 북부피해복구전투의 승리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이미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많은 세멘트를 보내준데 만족하지 않고 10월중에 계획된 세멘트전량을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이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순천석회석광산의 청년통명원들은 야간청년돌격활동으로 수백의 석회석을 운반하여 하루 석회석생산계획을 1.4배로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련합기업소직으로 연 1 000여명의 돌격대원들이 청년전위걸사대활동을 벌려 잔사처리, 강구선별, 무가물수집, 내화벽돌운반 등을 진행함으로써 세멘트증산에 한몫 단단히 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세멘트생산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앞세를 메고 걸린 문제들을 솔선 풀어나갔다. 3호소성로의 한구간에서 5㎡의 내화벽돌이 탈락되고 소성로통체가 균렬되어 가동이 중단될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식지 않은 로안에 들어가 걸사전을 벌려 2일은 걸려야 한다던 로보수를 단 16시간만에 끝내고 소성로의 동음을 높이 울릴수 있게 하였다.

조종직장, 조합원료직장, 소성직장, 로송직장, 크링카수송직장, 세멘트직장을 비롯한 주요생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협동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석회석광산, 점판암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세멘트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현속천공, 현속발파를 들이대여 석회석과 점판암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내화물분공장, 주강직장, 단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한의 세멘트라도 더 보내주자고 하면서 내화벽돌과 주물품, 단조품생산을 다그쳐 세멘트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었다.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절사관철의 투쟁정신과 불굴의 헌신성에 의하여 증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포전에서 첨입식정치사업을 들이대여

남포시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남포시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첨입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들끓는 농업전선에 진지를 차지하고 모두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정치사업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는 각급 당위원회일군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일본새로 하여 시안의 농장들에서 지난해에 비해 근 한달이나 벼가을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벼단찌들이기와 벼탈곡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사업은 당의 기본임무이며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입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도록 로력과 운수수단을 집중시켜주고 각급 당조직들이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들끓는 농장벌에 나가 농장일군들과 함께 포전을 밟으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한편 농촌에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온반수단을 집중시키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진행하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올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들끓는 포전마다에서 첨입식사상사업으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시적인 농사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온천군에 로력과 기재를 집중시키고 선전선동력량을 련속 파견하여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온천군의 여러 농장에 파견된 시당위원회일군들과 시예술단예술인들, 시안의 학습강사들, 직외강연강사들은 농장원대중과 한데 어울려 벼단찌들이기전투를 벌리는 여가에 예술선동, 구두선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농장원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다.

시안의 학습강사들과 직외강연강사들, 계급교양관강사들이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전투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각 구역, 군당위원회의 당선전일군들과 각 단위 선동원들도 농장원들과 한팀어리가 되여 일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와우도구역, 천리마구역, 강서구역의 당일군들은 농업부문일군들,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벼단운반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리하여 시적으로 제일먼저 벼가을을 끝낸데 이어 벼단찌들이기와 낟알털기를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특히 와우도구역의 당일군들은 벼단을 쪄들이는족족 탈곡할수 있게 탈곡기수리정비를 제때에 하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주어 시적으로 제일먼저 벼탈곡을 끝낼수 있게 하였다.

특파기자 주창선

배무이에서 혁신

신의주선박공장에서

신의주선박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배무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한달동안에 수상운수부문에 보내줄 260t급끌림배와 청천강정리를 위한 준설선을 무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충정의 200일전투기간에 여러척의 배를 무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로력조직을 짜고드는 한편 앞선 배무이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공장의 곳곳에 구호들과 이동속보판들을 전개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힘있게 폭발시키고있다.

배무이전투가 벌어지는 생산현장들을 맡고나간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리면서 그들이 배무이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공정간 맞물림을 잘해주고 생산현장에 들어가 걸린 문제도 풀어주면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배무이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배무이설계를 선행시키고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맡은 배무이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선체직장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척의 배라도 빨리 무어 수상운수부문에 보내줄 열의를 안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지상확대식조립방법을 비롯하여 앞선 배무이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용접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총전보다 배무이기일을 10일이상 앞당겨 끝내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문형기중기, 원통형기중기, 철판절단기, 500t프레스 등 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짜고들어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배무이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중주파유도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여 소재생산을 선행시키면서 매일 생산과제를 150%이상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완성직장에서는 배선제도장과 목공작업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면서 배무이기일을 단축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사이에 수상운수부문에 보내줄 260t급끌림배와 청천강정리를 위한 뿜프준설선 1척을 무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40돐이 되는 10월 18일까지 또 한척의 260t급끌림배를 무어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서는 배무이와 배수리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역에 많은 지원물자를 미리하여 보내주었으며 수십명의 로동자들을 피해복구전투장으로 파견하고 그들이 당의 믿음과 인민의 기대를 뼈에 새기고 피해복구전투에서 위훈을 창조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충정의 200일전투의 낮과 밤을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빛내여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배무이와 배수리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드높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과 청진강제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계속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에서

충정의 200일전투가 날이 감에 따라 고조되는 속에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10월 23일현재 관리국적인 년간 공업생산액계획을 123%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관리국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국적으로 제일먼저 년간계획완수의 개가를 올린 평양피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를 안고 집단적증산경쟁운동의 불화를 힘차게 지펴올렸다.

기업소적인 통합생산체계구축과 한소편람루터에 의한 자동실소비측정장치의 도입을 비롯하여 생산공정과 설비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강동피복공장 일군들은 후방사업이자 곧 정치사업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관점밑에 1 000㎡의 남새온실과 45㎡의 축사를 꾸려놓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의 생산의욕을 부쩍 높여주었다.

선교직물공장에서는 자재보장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다기대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필요한 설비와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생산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사동피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보장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정확히 지켜 제품의 질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하여 공장에서 생산한 소학교학생복이 2월2일 제품으로 등록되는 영예를 지니였다.

서포옷공장, 형제산피복공장, 만경대피복공장, 보통강피복공장을 비롯하여 관리국안의 많은 생산단위들에서는 당앞에 걸의다진 전투목표를 기어이 결사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안고 떨쳐나 8월 31일까지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심학철

청진강재공장에서

청진강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북부전선의 살림집과 공공건물건설에 필요한 철강재증산투쟁에서 새로운 기적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70일전투기간에 수행한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더 많은 환강을 보내주기 위하여 낮에 밤을 이어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강재생산의 첫공정인 유도로직장에서부터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용해공들은 공장기술집단과 지혜를 합쳐 출강장치를 새로 제작설치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일손을 덜어주면서도 출강속도를 훨씬 높이게 하였다.

민동무는 총대와 함께 청춘을 빛내이던 병사시절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면서 용해공들을 이끌어 교대당 차지수와 차지당 각강대수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공장의 전형단위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가고있다.

압연강재생산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영예와 긍지를 심장깊이 간직한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배탈 수백t의 쇠물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얼순환식가열로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책임기사 리호진동무의 기발한 착상에 의하여 올해초에 개조된 이 가열로는 많은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소재의 가열시간을 줄여 압연강재생산을 늘이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가열로작업반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잘 익은 소재를 압연계통에 원만히 보내주고있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의 새로운 기적이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압연직장 압연2작업반 로동자들도 낮에 밤을 이어가며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자기들의 순결한 애국의 땀이 스며있는 철강재들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을 북부전선으로 떠나보낸 때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기 위한 증산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맹세를 가다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당사상리론선전의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령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창간 70돐을 맞으며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따라 력사의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해온 조선혁명은 총대와 함께 붓대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긍지높은 혁명이다. 붓대를 중시하고 붓대의 위력으로 더욱 힘있게 전진하여온것이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의 력사이다.

오늘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창간 70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는 온 나라의 당원들과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를 창간하시고 명실공히 당사상리론선전의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합니다.》

혁명은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붓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이는 백두산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력사가 확증한 진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의 70년의 력사는 돌이켜볼수록 긍지롭다.

피어린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시여 우리 당을 창건하신데 이어 당의 정치리론잡지 발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해방후 우리 당은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러일으켜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세기적인 변혁들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력사상 최을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고 그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내세워준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세인을 경탄케 하는 력사적변혁들을 이룩하고도 정치리론잡지가 없다보니 그 업적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사업이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기관지로 당보외에 당중앙위원회 정치리론잡지를 빨리 발간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잡지에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리론적으로 전개한 글들을 많이 편집하여 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 나날 잡지의 제호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정치리론잡지는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교양하는 잡지가 되여야 하므로 그 제호를 《근로자》로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에서 당정치리론잡지의 창간문제를 상정시키고 대회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창간호에 로동당창립문제를 집중편집할데 대한 방향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주체35(1946)년 10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는 자기의 창간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창간호를 더욱 뜻깊게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집필하신 고전적로작이 잡지에 게재된것이였다.

일군들이 올린 《근로자》창간호를 받아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면서 앞으로 잡지의 질을 높이고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편집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의 창간, 그것은 우리 당사상리론선전사업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당의 정치리론잡지창간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모든 일군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출판물인 《근로자》를 창간하시였다. 그날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는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위력을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 《근로자》발행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사실과 잡지 《근로자》발행문제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토론하도록 하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하많은 령도사적들이 연혁사의 갈피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주체39(1950)년 12월 어느날이였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헌신분투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리론잡지 《근로자》의 발행과 관련한 문제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를 빨리 발행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전쟁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문제들에 시급히 결론을 주셔야 할 그때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며 《근로자》의 발행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은 크나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한평생 언제나 그러하시였듯이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사상사업의 혁명적전환을 위해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잡지 《근로자》의 발행준비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고 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정신에 근거하여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발행을 계속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해 가을날에는 친히 잡지 《근로자》를 보시고 론설의 리론적깊이가 보장되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며 당정치리론잡지 《근로자》편집일군들의 리론수준부터 높여야 한다고, 그래야 당중앙위원회기관지에 싣는 글들의 리론수준을 틀림없이 높일수 있다고 하시며 《근로자》에 게재되는 글 한건한건에도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리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절세위인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피심속에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는 발간을 멈추지 않았다. 《근로자》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고귀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주며 그들을 전쟁승리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마다에 《근로자》발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잡지에 편집할 글도 친히 지도해주시며 《근로자》가 명실공히 당중앙위원회기관지로서의 위력을 높이 떨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근로자》는 존엄높은 우리 당의 정치리론잡지로서의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근로자》를 중시하시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선 첫해부터는 직접 잡지의 매 호 편집계획을 지도해주시며 《근로자》가 당사상리론선전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창간 25돐을 맞을 때에는 《근로자》편집국의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정으로 보답하며 수령님의 참된 문필전사로서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고귀한 믿음을 안겨주시며 김일성주의리론선전의 앞장에 내세워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당사상리론선전사업을 앞세워나가는데서 《근로자》의 역할을 중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를 비롯한 로작들을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하도록 하시여 《근로자》의 리론적권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잡지 《근로자》편집계획을 몸소 보아주시며 매 호의 편집계획과 선전방향을 일일이 지도해주신 사연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로자》에 낼 론설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론설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한 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혁명적동지애에 대하여 하신 명제를 인용하고 내용을 전개해주는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며 론설을 완성시켜주시였다.

어느해인가는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준비한 글을 친히 보아주시고 아주 잘 썼다고 과분하게 치하하시며 그 글을 쓴 《근로자》편집국동무들을 표창하여야 하겠다고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이야기가 뜨겁게 전해지고 있다.

어느해 정월에는 잡지 《근로자》의 편집일군들과 기자들이 현실에 나가지 않고 책상머리에 마주앉아 글만 써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현실에 나가 현실을 체험하고 현실을 반영한 글을 쓸데 대한 다심한 가르치심도 주신분, 언제인가는 《근로자》편집국의 평범한 기자가 혁명과업수행중에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 동무는 당에 충실하고 일을 잘한 동무라고 하시며 자신의 명의로 화환도 보내주고 그의 자식들을 혁명학원에 보내며 사회주의애국희생중을 수여하도록 하시여 혁명의 대, 충정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실로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근로자》의 70년사의 갈피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지난 70년간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 《근로자》는 오늘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데서 사상의 위력을 중시하시며 출판물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가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실천으로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근로자》편집국의 론설원, 기자들이 집필한 중요론설들을 친히 지도해주시며 매호에 실리는 글들이 천만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는 사상의 미싸일이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믿음과 은정은 《근로자》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서 당중앙위원회기관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사상리론선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열의안고 오늘 《근로자》편집국안의 일군들과 문필가들은 혁명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오늘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명언들을 정중히 편집하고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 그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론설들과 혁명일화, 위대성자료들을 다양하게 편집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리론선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일편단심 충정다해 받들어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리론선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당정치리론잡지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길이 있다.

혁명의 붓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리론선전일군, 당의 붓대전사의 존엄과 영광을 높이 떨쳐갈것이다!

이것이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편집국안의 일군들과 문필가들은 혁명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오늘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명언들을 정중히 편집하고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 그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론설들과 혁명일화, 위대성자료들을 다양하게 편집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리론선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일편단심 충정다해 받들어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리론선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당정치리론잡지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길이 있다.

혁명의 붓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리론선전일군, 당의 붓대전사의 존엄과 영광을 높이 떨쳐갈것이다!

이것이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편집국안의 일군들과 문필가들의 불타는 맹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당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는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제해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우리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고귀한 지침이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이 성스러운 칭호에는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려있고 전세대 로동계급의 충정과 위훈의 전통이 새겨져있으며 위대한 김정은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본태와 전투적기질이 백박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사랑과 믿음, 열과 정으로 키우신 우리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투철한 혁명성, 강한 조직성과 전투성, 단결력은 절대불변이다.

력사에는 조선혁명처럼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걸음걸음 혁명의 진퇴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과 역정을 헤쳐온 례는 없다. 그러나 이 땅우에서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제단으로 일어나고 위대한 승리의 서사시가 자랑스럽게 수놓아지고있다. 이것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하여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조선로동계급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민주조선건설로선을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 전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 짧은 기간에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고 생산과 건설의 거세찬 동음을 울리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기의 맹폭격과 불비속에서도 전시생산과 전시수송을 보장하여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한것도 로동계급이며 전후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제일먼저 지펴올린것도 우리 로동계급이였다. 룡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비롯한 대중적혁신운동의 선구자도, 80년대속도창조의 주인공도 바로 우리 로동계급이였으며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성강과 라남의 봉화를 지펴올린것도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였다. 로동계급의 애국헌신과 창조력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우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봉쇄속에서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이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인 로동계급의 본태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만든 비행기와 지하전동차, 수소탄을 비롯한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개척자, 척후병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있는 우리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금도 수천척지하막장과 용해장, 두줄기의 철길과 북부피해복구전투장을 비롯한 우리의 로동계급이 지켜선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는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 대비약적혁신의 열풍이 차넘치고 자력자강의 억센 기상이 나래치고있다.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만리마의 속도를 창조하며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을 비롯한 천만군민이 있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기적적승리가 이룩되고있는것이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불같은 열정과 높은 실천력, 견결한 원칙성과 완강한 투쟁력을 지닌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켜서있는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당의 크나큰 힘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거대한 원천이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가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윤 철 희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해가고있다.
— 백 성 군 에 서 —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루사카

잠비아공화국 대통령

에드가르 룬구각하

나는 잠비아독립 5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잠비아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잠비아공화국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리익에 맞게 확대발전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것과 귀국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10월 24일 평 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창간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평양 10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근로자》창간 70돐 기념보고회가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로동당출판사 기자, 편집원들, 시안의 리론선전일군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리영철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5(1946)년 10월 25일 정치리론잡지 《근로자》를 창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잡지가 창간됨으로써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혁명업적을 내외에 널리 선전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에 맞게 잡지의 제호를 《근로자》로 부르도록 하시고 잡지의 기본임무로부터 편집방향과 내용, 배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잡지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시기의 요구에 맞게 잡지 《근로자》의 편집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잡지가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당적출판물,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출판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잡지 《근로자》의 자랑찬 력사는 더욱 빛나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어 지난 70년간 잡지 《근로자》가 혁명의 붓대로 우리 당을 경사용위하며 당사상리론선전의 앞장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정치리론잡지 《근로자》의 창간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앞에는 당사상리론선전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 천만군민을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붓대, 선군의 필봉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전위투사가 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붓대철학을 집필편집활동의 근본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사상리론의 충실한 대변자, 당의 로선과 정책의 믿음직한 선전자, 당정책옹위전의 힘있는 나팔수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쟁취하여 뜻깊은 올해를 200일전투의 자랑찬 승전포성으로 빛내이기 위한 리론선전활동을 전투적으로 기동성있게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붓대, 선군의 필봉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우리 일군들에게 새겨주신 실리의 참뜻에는 경제학적개념외에 보다 심원한 의미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들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주체92(2003)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흥시의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건설된 이 공장에서는 파다이야를 가지고 고무가루를 생산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고있었다.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21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공장이라고 만족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고무호스와 고무보도블로크, 신발을 비롯하여 고무가루로 만든 여러가지 제품들이 전시되여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한동안 제품들을 살펴보시며 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고무가루를 어떤 나라에 파는가고 물으시였다.

도의 한 일군이 아직 다른 나라에 파는것은 없고 최음 생산한 고무가루를 인민군대와 도안의 신발공장들에 보내주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이 공장에서 이런 고무가루를 생산하여 인민군대와 도안의 신발공장들에 적지 않게 보내주었으면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확실히 실리에 맞는 아주 훌륭한 공장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순간 공장일군들의 머리속에는 실리에 대한 전해에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도의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공장의 생산품을 아직 다른 나라에 파는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여도 리윤은 생각지 않고 제품을 국내의 기관, 기업소들에 주는것이 실리보장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들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우리 인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보내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실리에 맞는 아주 훌륭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실줄 어찌 알았으랴.

잠시후 공장의 전력소비량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공장경영활동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것은 간고한 투쟁속에서 피로써 쟁취한 우리 공화국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고 빛내이는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성스러운 애국투쟁!

그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고서야 일군들의 머리속에 리윤이라는 단순개념으로 인박혔던 실리가 애국이라는 숭고한 개념으로 승화되게 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리익을 줄수 있는것,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고활동원칙으로 내세운 어머니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는것이 바로 실리라는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새겨주신 실리의 참뜻이였다.

본사기자 강 원 남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세멘트공장들과 화력발전소들에 질좋은 석탄을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

당중앙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증산투쟁의 불길높이 세멘트공장들과 화력발전소들에 질좋은 석탄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9월 한달동안에만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는 171%에 해당한 석탄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는 1만 2 500여t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보내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각지의 탄부들은 10월에 들어와서도 증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여 세멘트공장들과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석탄공업성에서는 세멘트공장들과 화력발전소들에 질좋은 석탄을 선차적으로 보내주는것을 200일전투의 중심과제로 반영하고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고있다.

성책임일군들과 생산지휘일군들이 주요탄광들에 좌지를 차지하고 더 많은 석탄을 세멘트공장들과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주기 위한 전투를 과감하게 조직전개하고있다.

각지 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맡겨진 석탄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지난 9월 계획외에 3 400t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보내준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10월에 들어와서도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천성청년탄광, 평대탄광에서는 지난 9월 3 000t의 석탄을 증산하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고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도 자기앞에 맡겨진 석탄보장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곳 탄광들에서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들에 대한 석탄보장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석탄보장을 맡은 덕천, 북창, 득장지구의 탄부들도 당중앙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성과를 나날이 확대하고있다.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석탄보장을 맡은 개천, 조양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들에서도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원지구와 온성지구,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고무산세멘트공장의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우선적으로 생산하여 보내주고있다.

경원,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번 큰물피해로 침수된 여러 탄광들의 갱막장들을 복구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석탄생산전투를 중단없이 밀고나가고있다.

특히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고건원탄광, 룡북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견인불발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중봉, 풍인, 학포탄광들에서도 혹심한 피해를 입은 갱들을 복구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내밀면서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도 중요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북부피해지역에 필요한 석탄보장과 관련한 긴급협의회를 열고 모든 탄광들에서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치밀한 작전으로 일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석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엄격히 세웠다.

또한 탄부들의 역할을 높여 질좋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화차머무름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있다. 하여 고무산세멘트공장에 10월말까지 보장하게 된 석탄증산과제를 10월 9일까지 126.5%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그 기세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당중앙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석탄공업부문 각지 탄광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줄기찬 투쟁으로 세멘트공장들과 화력발전소들로는 더 많은 석탄이 들어서고있다.

전혀영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를 안고 석탄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봉천탄광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일어마다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새로운 생산적앙양을 이룩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의 200일전투 당지도소조에서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강력으로 전력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김창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보장에 언제나 큰 힘을 넣으면서 첨입식정치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전력생산의 주요공정인 미분화계통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종전보다 연소효률을 1%이상 높이고 시간당 증기생산량을 부쩍 끌어올리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박남칠, 림광주동무와 설계실, 대보수직장과 보온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찬공기침습을 결정적으로 막는데 모를 박고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다.

이들은 분리기의 효률을 근 1, 2배로 높이고 풍기량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콩크리트구조물을 새로 설치하여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시간당 2t이상의 증기를 증산할수 있는 밑은 전망을 열어놓고 있다.

2중3대혁명붉은기 열생산직장의 교대장 박영섭동무와 조자풍, 림인 석금산, 김정길, 남광일동무들은 보이라에 대한 2차, 3차풍기공급량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급탄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과학기술적인 운전조작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증산의 동음을 계속 힘차게 울리고있다. 박성훈, 량석숙, 라정철, 장승필, 박규성동무를 비롯한 터빈직장의 전투원들은 짧은 시간안에 자체의 힘으로 성능높은 뽐프를 받아들이면서 4호타빈을 비롯한 발전설비들의 능률을 훨씬 높이고있다. 하여 매일 전투목표를 1.1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 일최고생산기록을 련속세차례나 갱신하는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전기타빈보수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시기 다른 기업소에 의뢰하여 진행하던 5호급 수설비의 기술상태측정과 수리정비과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손색없이 수행하였으며 합리적인 지구장비들을 받아들여 발전설비보수기일을 종전보다 1/3로 줄이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전기시험실의 김영섭, 김석승동무들은 고압배전계통의 이상요소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정상운영을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지력갱생직장과 보온직장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강률과 보온솜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 공무직장에서는 선반과 단조설비들을 기술개조하여 맡겨진 부속품생산과제를 130% 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들모두의 가슴마다에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기어이 갱행돌파하여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고 200일전투의 결승선에 남먼저 뗏뗏이 들어섬으로써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자랑찬 전력증산성과로 억세게 받들어가려는 강렬한 열망이 용암마냥 뜨겁게 굳이치고있다.

하기에 10월에 들어와 화력발전부문적으로 일정계획수행에서 제일 앞서나가고있는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두뇌전, 기술전의 불길높이 200일전투승리의 봉우리를 향하여 련속공격,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새 기록창조로 들끓는 전투장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출봉광산에서

북부피해복구에 절실히 필요한 세멘트를 중단없이 생산보장하며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고있는 애국충정의 대오속에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출봉광산의 미더운 로동계급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전시생산을 보장하는것처럼 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매일 과제를 빛나게 초과완수하고있는 이들은 최근 한달동안에만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광석생산량을 1.5배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있다.

북부피해복구사업을 200일전투의 중심과제로 반영하고 많은 량의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낸 한명철, 주철수, 최승진동무들이 첨입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며 광부들과 함께 불꽃튀는 증산전투를 벌리고있다.

최근 석달동안에만도 20여차례의 발파를 모두 성과적으로 진행한 채광소대의 전투원들이 자랑찬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리고있다. 특히 황룡남, 리광철, 심봉섭, 리정근, 지현철동무들이 종전보다 착정기의 천공속도를 1.6배이상으로 높이면서 일최고생산실적을 련이어 갱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여러 설비들의 기술개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해제낀 박동준동무와 파쇄소대의 전투원들도 북부전선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줄 일념안고 일전투목표보다 150여t의 광물을 더 생산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광물증산을 위한 새 구역개발공사때였다.

번덕스러운 날씨조건으로 하여 적지 않은 도로구간이 물러앉으면서 륜전기재들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멘트증산에 필요한 광물들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굴착기운전공 리금철, 손영일, 서광철동무들과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인 고철남, 박용철, 떠주경동무들이 비상한 각오와 투지를 안고 운전대를 억척같이 틀어잡았다.

륜전기재들을 한대씩 담당한 일군들이 운전칸에 함께 올라 이들을 힘있게 고무해주었으며 도로소대의 전투원들이 심여리구간에서 보수작업을 치렬하게 벌리였다.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륜전기재들이 지체내리면 한몫이 그대로 버림목이 되여 막아나서고 날이 어두워지면 추켜든 해불들로 앞길을 더욱 밝히면서 각종 광물들을 중단없이 생산보장하였다.

전시생산을 보장하는것과 같은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광산의 로동계급은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9월생산목표를 앞당겨 접령하고 10월에 들어와 3주일동안에만도 계획보다 3 000여t의 광물을 증산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출봉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증산투쟁의 불길높이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고 북부전역의 승전포성을 하루빨리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일념안고 최후승리의 명마루를 향해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당의 호소따라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나간다.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

두줄기 궤도우에 위훈을 새겨온 긍지드높다. -평양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결사관철로 이어진 6시간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 수리중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만짐을 싣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기관차들.

이 무쇠철마들이 울려가는 중송의 기적소리에는 서평양기관차대 수리중대 전투원들의 숨은 노력도 깃들어있다.

얼마전 중대앞에는 전기기관차 3대를 6시간동안에 수리정비하여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떠나보내야 할 긴급한 전투명령이 하달되였다.

전투명령을 무조건 관철하자는 웨침소리는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전화의 용사들처럼 절박한 전투과제를 기어이 시간전에 완수하리라는 굳센 의지가 비껴있었다.

수리중대장 박상식동무가 때차대 수리중대 전투원들의 숨은 기관차의 고장원인과 규모에 따라 소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전투에 진입시켰다.

불꽃튀는 전투가 시작되였다. 선정기중기가 기재와 장비들을 재빠르게 이동시켰고 용접개소마다에서 튀여오르는 불꽃들은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붉은기》6030호의 전인전동기수리를 맡은 락륜소대, 소수리끌전동기소대, 대수리끌전동기소대 전투원들은 보다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바꿈식수리방법을 적용하였다.

기계소대 전투원들은 6시간 걸리던 전동기조립을 한시간동안에 끝냄으로써 수리속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날전투에서 제일 난문제는 《붉은기》5404호 송풍전동기수리였다.

기존방법대로 기관차에서 전동기를 통채로 들어낸 후 분해하여 수리하자면 바꿈식수리방법을 적용해도 짧아서 10시간이 걸려야 하였다.

소수리보조전동기소대 대원들은 현 상태에 따른 대책적방도를 즉시에 포착하고 전동기를 분리하지 않고 수리지구를 기관차에 설치하고 고장요소를 퇴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붉은기》5343호를 맡은 7개 소대는 압축기를 비롯한 여러 고장부분수리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들끓는 전투현장은 그야말로 결전장이였다.

승리에로 이어지는 긴장한 한 초한초가 흘렀다.

그들이 흘린 충정의 땀방울이 그대로 기관차마다에 어렸는가, 이날전투에서 《붉은기》6030호는 5시간, 《붉은기》5404호는 3시간, 《붉은기》5343호는 4시간만에 수리정비하는 혁신이 창조되였으며 모두 6시간전에 성과적으로 출발시키는 자랑찬 결실을 이룩하였다.

이날 수리중대 전투원들은 야간전투를 벌려 3대의 기관차를 원만히 수리정비하여 또다시 전선으로 출발시켰다.

오늘도 서평양기관차대 수리중대 전투원들은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더 많은 기관차들을 떠나보낼 불타는 일념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명춘길

조선로동당대표단 웰남, 인도네시아방문을 위하여 출발

【평양 10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웰남에서 진행되는 제18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2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팜 비엣 홍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성원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명주실생산을 늘인다

희천제사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희천제사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희천방인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함께 서있는 심정으로 명주실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지난 9월 명주실생산계획을 114%로 훨씬 넘쳐 수행한 공장의 로동자들은 10월에 들어와서도 생산돌격전을 치렬하게 벌리면서 공장이 생겨 있어보지 못한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선별, 자견, 조사, 제조작업반에서 생산설비들이 만가동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이곳 작업반들의 로동자들은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명주실생산계획을 매일 13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주체98(2009)년 10월 24일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질좋은 명주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도적인 누에고치생산이 비약적으로 장성되는데 맞게 명주실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매달 1t이상의 명주실을 더 생산하기 위한 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지배인 박철훈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설비리용률을 더욱 높이고 증기생산을 늘이는데 힘을 넣어 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일군들은 시안의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과의 련계밑에 부속품생산에 필요한 소재들을 보장해주어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공무작업반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콜라즈마용접기와 제관설비들을 창안제작하여 필요한 부속품의 대부분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작업반에서는 40여종에 5천여점의 설비부속품들을 생산하여 설비리용률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지금 설비가동률을 100% 보장하면서 명주실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열관리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보이라의 기술관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면서 명주실생산정상화를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

그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증기생산에 받아들여 석탄소비량을 줄이면서 연소효률을 더욱 높이고있다.

명주실생산의 기본공정인 조사공정을 지켜선 로동자들이 명주실증산돌격전에서 준마처녀, 로력혁신자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리현미, 류철순, 한성심, 박희숙동무를 비롯한 조사작업반의 조사공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매일 맡겨진 명주실생산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작업반들,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명주실생산실적은 계속 높아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떨쳐나섰다

북부피해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직맹, 녀맹,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근로단체조직들이 대고조진군의 격류에 발맞추어 동맹원들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각급 직맹, 녀맹,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이 북부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근로단체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과 일군들과 동맹원들의 드높은 지원열기는 북부피해복구전역에 기적창조, 위훈창조의 열풍이 더욱더 세차게 몰아치게 하고있다.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의 위력으로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를 북부전선에 파견하여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을 기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전투장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도록 하였다.

함경북도직맹위원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 청진시를 비롯한 도안의 직맹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이 피해복구전투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에서는 북부피해복구전선에 필요한 강재보장전투로 들끓고있는 압연직장의 작업현장에 20여점의 직관선전물들을 게시하고 7명의 직맹이동해설강사들이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북부피해복구용철강재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해설담화자료를 비롯한 정치사업자료들을 기동적으로 내려보내줌으로써 각급 녀맹조직들이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피해복구전투현장에 방송선전차와 음향설비를 보장해주어 녀맹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였다.

평안남도녀맹위원회에서는 420여개의 녀맹해설대들을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파견하여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생산자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해설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공무분공장의 피해복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생산에 진입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도 모든 녀맹조직들이 사회주의경쟁운동, 녀맹돌격대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함경북도녀맹위원회에서는 무산군을 비롯하여 피해를 받은 6개 시, 군의 녀맹원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고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망양나루터와 남양혁명사적지, 풍성신흥촌혁명사적지 등 7개의 혁명사적지주변에 쌓인 감탕처리와 40여km의 도로복구, 12개소에 1만 2천여m의 강하천제방쌓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함흥시 해안구역녀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 따라 흥남항에 달려나온 800여명의 녀맹돌격대원들은 더 많은 세멘트를 북부전선에 보내주기 위한 철야전투를 벌려 수백t의 세멘트를 북부전선으로 떠나보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군안의 13개의 농장들사이에 도로복구전투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한 무산군농근맹위원회에서는 전투현장들에 표어 700여개, 속보판 80여개를 비롯한 직관선전물들을 게시하고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하여 50여개소에 140여km구간의 도로를 복구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드세찬 경쟁열풍, 힘있는 돌격대활동

각급 직맹, 녀맹, 농근맹조직들에서 벌리는 사회주의경쟁운동과 돌격대활동은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기적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일군들을 무산군을 비롯한 피해지역들에 파견하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피해복구전투에 동원된 시공단위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무산군과 연사군 등 피해지역들에 경쟁분과를 내오고 경쟁총화와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하도록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에서는 250여명의 일군들과 동맹원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불러일으켜 망양나루터와 남양 북부전선으로 떠나보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군안의 13개의 농장들사이에 도로복구전투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한 무산군농근맹위원회에서는 전투현장들에 표어 700여개, 속보판 80여개를 비롯한 직관선전물들을 게시하고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진행하여 50여개소에 140여km구간의 도로를 복구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북부전선으로 향한 지원열기

한t의 세멘트, 한kg의 쌀이라도 더 증산하고 한푼의 자금이라도 더 마련하여 피해복구전선에 시급히 보내줄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급 직맹, 녀맹, 농근맹조직들이 북부전선에 대한 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식량과 피복류를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북부피해복구지역에 보내준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북부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직맹조직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결과 평양시직맹위원회에서 수많은 식량과 각종 피복류, 생활필수품 등 20여종에 2만여점을, 함경북도직맹위원회에서 10여종에 천수백점의 작업공구와 수십kg의 용접봉, 많은 현금과 식량 그리고 70여종에 1 600여점의 생활필수품들을 북부피해복구지역에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많은 직맹조직들이 북부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평안남도직맹위원회, 황해남도직맹위원회,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 남포시녀맹위원회, 개성시녀맹위원회, 김책시녀맹위원회, 청진시 수남구역녀맹위원회, 평안북도농근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직맹, 녀맹, 농근맹조직들이 북부피해복구전선을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어서라도 이제 당장 들이닥칠 엄혹한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근로단체일군들과 동맹원들은 애국충정의 마음을 안고 북부피해복구전투지원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 바치였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급 직맹, 녀맹,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 동맹원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과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는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한영철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우리 당에 충직한 녀성혁명가집단, 만리마의 녀성기수들

200일전투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우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의 충정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

지난 9월 14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충정의 200일전투의 앞장에서 달려온 공장로동계급에 대한 우리 당의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는 회의장은 격정의 바다로 설레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소용돌이친것은 단순히 만난을 뚫고온 지난 100여일에 대한 깊은 감회나 추억, 온 나라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선구자집단이 된 기쁨과 자랑만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게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진실에도 없는 만리마를 이 땅에 불러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시대의 앞장에 평범한 방직공들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하늘같은 믿음에 기어이 보답한 우리 나라 녀성로동자혁신부대, 녀성혁명가집단의 200일전투기록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슬절도 박동도 걸음도 함께 하는 이 나라 녀인들의 백옥같은 충정이 어떤 위대한 힘을 낳는가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준다.

전투전야의 사흘간

충정의 200일전투를 앞두고 온 나라가 들끓던 지난 5월의 마지막일요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당위원회 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200일전투진입까지는 이제 사흘!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매 일군들에게 공장의 생산단위들과 과, 부서들의 200일전투목표를 세우는 사업을 도와줄데 대한 분공이 조직되고 일군들은 즉시 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갔다.

그 시각 민일홍지배인의 방에서는 행정일군들과 기술자들이 200일전투기간 생산과제수행과 기술발전계획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토의하고있었다.

전투에 전투를 벌려서라도 생산도 기술혁신과제도 다 수행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나오는 가운데 그에 대한 방도를 찾기 위한 론의가 계속되였다.

직포종합직장 3직포직장에서는 유연창대직기에 의한 우리 식의 가방천생산공정을 더 완성하여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일정에 올랐다. 올해 1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당이 바란다면 기어이 한다는 정신으로 이악하게 꾸린것이였으나 아직 부족점이 남아있는 공정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가방천생산공정에 차려놓은 설비들이 수입설비들처럼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자체로 만든것이기때문에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가방천생산공정을 꾸리면서 설비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였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에 가방천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정말 힘이 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날의 그 감격을 안고 분공실직장장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200일전투기간에 가방천생산공정을 앞선 수준의 생산공정으로 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릴 맹세를 다지였다.

다음날 아침부터 공장일군들의 책상우에는 각 생산단위와 과, 부서들에서 결의한 전투목표가 씌어진 문건들이 무드기 쌓이기 시작했다. 종업원들의 불같은 슬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문건들을 온밤 깐깐히 검토하고난 지배인, 당위원장, 기사장이 다시 모여앉았다.

《필 더 할게 없을가요?》

오춘영당위원장이 자신에게 묻듯 조용히 하는 말이였다. 이윽하여 그는 말했다.

《우리가 세우는 200일전투계획이 아무리 높다한들 공장이 대대로 받아안은 절세의 위인들의 믿음과 사랑에야 어찌 비할수 있겠습니까.》

이 일터에서 어느덧 년로보장나이가 지난 지배인도, 이전 지배인이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장에 삶의 뿌리를 내린 기사장 리용근동무도 눈굽이 찌릿해왔다.

공장탁아소에 이르기까지 공장구내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속속들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서 큰 몫을 맡아하는 공장이라고, 녀성들이 일하는 공장이라고 더욱 각별히 마음을 쓰시면서 당창건기념일과 국가적기념일에도 찾아오시여 공장로동계급을 기적과 혁신에로 떠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이시였다. 누구나 옷을 입을 때에는 방직공들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는 로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있지 않던가.

그런데 오늘은 또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더해져 공장정문에는 그이의 고귀한 친필을 새긴 현판이 빛나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는 희한한 로동자궁전이 솟아올라 방직공들은 끝없는 행복감에 수료하심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그는 제일 첫칸에 자기 이름부터 썼다. 정방공출신인 부문당위원장을 따라 당원들은 저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리광섭, 김용진, 원창일…

근엄한 얼굴로 자기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나가는 그들의 심장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후결사전에 앞장선 당원용사들인양 높뛰였다. 그 교동소리는 600벌 군복이야기의 참뜻, 결사관철을 웨치고있었다.

당원들의 일분새가 달라졌다. 자기 교대를 마치고도 현장에 남아 옥양공, 운반공, 정방공이 되여 일손을 돕는 그들의 뒤를 청년들이 따라나서고 직맹원들도 합세하였다. 직장에는 단 며칠사이에 3개의 돌격대가 생겨났으며 실생산량은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공장당위원회에서는 이 모범을 수십개의 생산단위에 적극 일반화하여 공장적으로 180여개의 돌격대가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것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였다. 건축면적 652㎡, 연건축면적 2,042㎡의 덩지큰 건물인 로리실습장건설을 비롯한 여러 공사과제들이 만리마의 속도로 다그쳐지고 수천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단며칠사이에 공장구내에 뿌리내렸다.

원동직장의 연수장에 3m 높이로 쌓인 2,300㎥에 달하는 침전물을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퍼낸것도 공장의 수십개 직장 리수복청년돌격대들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이 이룩한 기적중의 기적이다. 사실 그것은 200일전투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연수장에서의 물오염으로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는것을 알게 된 공장일군들이 이 엄청난 일을 결심하였을 때 돌격대원들은 활화산같이 떨쳐나 대부분의 감탕을 활차와 인력으로 말끔히 퍼내였다.

200일전투의 결사관철전에서 일명 가정부인돌격대라고도 하는 직맹돌격대원들도 뒤지지 않았다. 직포종합직장 3직포직장에서 새로 확립한 우리 식의 가방천생산공정에는 이 직장 직맹돌격대원들의 피땀이 깃들어있다.

기술자들이 새로운 가방천짜임방법을 시험할 때 오영숙, 한혜련, 김성숙동무들 비롯한 경통공들은 발벗고 도와나섰다. 너비가 1㎜정도밖에 안되는 좁은 잉아눈에 근 6,000오리나 되는 실을 하나하나 꿰여 바디에 잡아매는 일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직기 한대의 돌차림을 하는데만도 두명의 경통공이 하루로동시간을 바쳐야 한다.

새 방법도입시험을 위해 단 몇m의 천을 짜고는 직기에서 천을 떼여낸 다음 다시 8시간을 바쳐 6,000오리를 꿰고, 그렇게 하기를 몇십번 거듭하였으니 이 나날 그들이 꿰고낸 실오리는 과연 몇천몇만오리이며 낮에 밤을 이어 새 공정완성의 밑거름으로 묵묵히 묻은 땀은 그 얼마이겠는가.

그들도 한가정의 주부이며 어머니들이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식이 찾아왔을 때 오영숙동무는 그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만 네가 학교갈 때 메고 다닐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가방을 만든단다.》

그 말을 듣고 좋아라 손벽을 치는 아들애의 모습우에 온 나라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 내 나라의 넋이 깃든 훌륭한 가방을 우리의 귀중한 후대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사색과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그는 눈금을 적시였다.

(원수님, 아이들의 교복과 가방을 만드는 일은 우리 어머니들이 다 맡겠습니다.)

이런 충정의 마음들이 낳은 결사관철의 정신이 만리마의 기적을 낳았다.

그것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600벌 군복이야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생산현장마다 나붙은 글발이 있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이 공장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매일, 매시각 심장을 흔들어주는 이 량심의 물음은 단순히 속보판의 구호나 선전화의 글발이 아니였다. 지난 1월 공장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당부이고 믿음이였다.

뜻깊은 그날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부대로 우리 공장이 제일먼저 만리마를 타야 한다고 누구나 응당하게 생각하고있었으며 당세포로부터 초급당조직들, 청년동맹, 직맹의 조직들뿐아니라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모두가 스스로 200일전투의 량심의 목표로 그 물음을 쪼아박았다.

련속 세해째 5년분 계획을 완수한 전방종합직장 4직포직장 직포공 한명희동무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직기 10대를 맡아 또다시 5년분 과제를 수행할것을 궐기해나섰다. 그가 3년분 과제완수에로 치달던 지난 6월 중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여 한 처녀조사공을 몸가까이 만나주시고 올해에 꼭 6년분 과제를 해내겠다는 그의 결의도 들어주시였다.

그날 자정이 깊어 생산현장을 돌아보던 직장 부문당위원장 서원식동무는 기대사이를 송송히 달리는 한명희동무의 얼굴에 그늘이 진것을 보았다. 곁에 다가온 부문당위원장에게 한명희동무는 사연을 이야기했다.

《전 사실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3년분 과제를 끝내게 된것을 기뻐하기만 했지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온 제사공장의 그 조사공처럼 6년분 과제를 목표로 내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결의한것보다 한해분 과제를 더 수행하겠습니다.》

하루에 닷새를 사느라고 뛰고 또 뛰였을 당원직포공처녀, 만리마시대 혁신자들의 심장속에는 이렇듯 공장에서 제일 앞서나가는 만리마가 아니라 나라적으로 제일 앞서 달리는 만리마에 올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혁신자가 되겠다는 크나큰 꿈과 포부가 간직되여있다.

한명희동무는 여러가지 앞선 순회방법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기계의 특성을 과악한데 기초하여 잘 돌아가지 못하는 기계들에는 더 자주 가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기계들은 마치 아이들과 같아서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심술을 부리며 멎어서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와 만났을 때 그는 《직기란 그저 울며 보채는 아기들을 돌보듯이 쥐고 또 뛰며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우스개소리삼아 이야기했다.

기능공들만 만리마를 탔던가. 공장에 들어온지 한두해밖에 안되는 신입방직공들도 200일전투기간에 2년분 계획완수목표를 내걸었고 엊그제 일을 시작한 양성공들도 년간계획완수자들의 뒤를 바싹 따랐다.

박수향동무는 200일전투가 시작된 올해 6월에 공장에 들어와 한명희동무에게서 전습을 받은지 2개월만에 단독으로 직기 3대를 맡아 천을 짜겠다고 나섰다. 직기들의 다정한 엄마이기도 하고 양성공들의 친혈육이기도 한 한명희동무가 정말 해낼수 있겠는가고 물었을 때 17살의 나어린 처녀양성공은 되알지게 대답했다.

《두고봐요. 인차 기능공들한테 경쟁을 걸지 않나.》

이 이야기를 하며 한명희동무는 대견함을 금치 못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얼마나 장하게 여기시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생산수지만 높아지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 세대들의 사상정신이 이렇듯 몰라보게 성장하고있다.

일군들도 만리마를 탔다. 드바쁜 하루일을 마감하는 깊은 밤이면 귀전에 오늘은 또 공장종업원 누구누구를 만리마에 태웠소라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깊은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아 수십리나 되는 공장구내길을 돌고돌며 생산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종업원들의 심장에 더 세찬 불길을 지펴올린 공장일군들…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직포공 리명순동무는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혁신자, 선군시대공로자이다. 직기를 10대나 맡아보는 그는 200일전투가 시작되자 본래 있던 교대작업반보다 실적이 낮은 교대작업반으로 옮기고 또 일이 손에 설어하는 신입로동자까지 맡아 기능을 한계단 올려세울 결심을 하였다.

공장에 혁신자는 있어도 개인의 만리마는 없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전투적호소, 시대의 엄숙한 물음에 그들은 《나는 만리마를 탔습니다.》라는 대답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만리마를 탔습니다.》라는 작업반, 직장의 힘찬 합창으로 대답하였다.

온 공장이 만리마를 타야 진짜 만리마라는 집단주의정신이 나래쳐 정방공들속에서는 빈 추가 없는 정방기를 넘겨주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소행들이 늘어나고 수리공들은 방직공들의 다기대, 다추운동의 맡없는 밑거름이 되였다.

지난 8월 3일 화학섬유방직종합직장 준비공정의 한 설비가 전동기회전자축의 금작스런 파손으로 당장 멎어서게 되였다. 지금까지 수십종에 2만여개의 중요부속품들을 구입하여 수십대의 멎어있던 설비들을 되살려낸 공무과 무원 정영국동무는 찌는듯 한 무더위속에 시안의 여러 단위들을 뛰여다니며 소재를 구하여 가공조직을 한 다음 다른 예비부속품을 가져오기 위해 공장부속품창고로 달려갔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모습으로 될줄 누군들 생각조차 했으랴.

얼마후에 사람들은 창고안에서 부속품을 손에 움켜쥐채 그만 심장이 멎어 바위처럼 굳어진 정영국동무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마치도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혁명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라고 마지막웨침을 남기고 간 투사의 모습을 보는듯싶어 모두가 피는물을 흘렸다. 그의 심장의 박동까지 함께 공장의 설비들은 오늘도 증산의 동음, 사회주의전진의 동음을 높이 높이 울리고있다.

전방종합직장 준비직장 1작업반 정경공인 36살의 김지은동무도 아픔을 무릅쓰고 초인간적인 의지로 기대를 물리다가 이른새벽 기대걸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인민의 옷감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수도의 방직기지에 스스로 일터를 정하였으며 문학을 남달리 사랑하여 생산돌격전을 벌리는 속에서도 날로 커가는 공장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정을 담은 시작품을 쓰던 그의 열화같은 심장이 고동을 멈춘 바로 그 기대에서 우리는 22살의 최은별동무를 만났다. 그는 지난시기 지은동지와 둘이서 양성공 한명을 데리고 일하였는데 지금은 자기 혼자서 양성공 두명을 데리고 일한다고, 힘에 겹지만 200일전투가 끝나는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 우리모두가 만리마를 탔다고 꼭 말씀드리자던 지은동지와의 약속을 생각하며 힘을 내군 한다고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했다.

《지은동지도 우리와 함께 만리마를 타고 달리고있어요.》

기대공은 갔어도 그의 만리마, 공장의 만리마는 이렇듯 기세높이 달린다.

전방종합직장 인견천직장 혁신자들가운데는 두해전 겨울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신발이 벗겨지는것도 모르고 달려가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19살의 정경공 류순미동무도 있다.

정방공이였던 할머니의 뒤를 이어 영광의 일터로 달려온 바로 그해에 뜻밖의 행운을 지닌 그는 200일전투에 참가하여 기능공들처럼 손동작이 빠르지 못한것이 안타까와 울기도 하고 기능련습을 하다가 지쳐 현장에서 쪽잠에 들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날의 불붙던 심장의 열이 조금도 식지 않았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그의 혁신자사진이 지방도시에 자리잡은 그의 집에 가닿았을 때 어제날의 천리마기수인 할머니는 이런 말을 전해왔다.

《장하다! 천리마시대 정방공의 손녀답구나.》

기대의 동음은 더 힘차지고 일터의 모습은 번모되였어도 추호도 변하지 않은것은 당이 부르면 온 공장이 떨쳐일어나 불도가 너가 되고 언제나 령도자와 숨결도 걸음도 같이하는 어제날 천리마공장의 고결한 충정의 넋이다.

공장에서는 지난 10월 10일까지 5년분 계획완수자 1명과 4년분 계획완수자 1명, 3년분 계획완수자 10명, 2년분 계획완수자 52명과 670여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나왔다. 지난해의 같은 시기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이 수자는 지금이 시각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정녕 만리마는 수령과 하나의 심장이 되여 힘차게 내닫는 우리 로동계급의 드높은 기상이고 열정이다.

* *

가정에 대한 사랑, 처녀시절의 꿈, 녀성으로서 누릴수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것을 혁명이라는 성스러운 위업과 합치고 그 길에서 청춘도, 피와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항일빨찌산의 녀투사들처럼, 혁명의 한폭수레바퀴를 결싸게 밀어 천리마동상우에 시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오른 천리마시대의 녀성기수처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녀성혁명가부대는 오늘도 만리마에 힘찬 박차를 가하며 조선녀성의 기상과 본때를 온 세상에 떨치면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이 나라 어머니들의 모든 꿈과 리상이 실현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시대 녀성들을 따뜻한 믿음과 사랑의 한품에 안아 혁명의 만리마에 태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본사기자 허명숙
본사기자 오은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대표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4일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할 중국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김일성, 김정일동지를 깊이 추억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한

연구토론회 진행

비물질문화유산보호사업과 관련한 연구토론회가 2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교육, 과학,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근로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국장 룡주,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정만호, 김형직사범대학 부원장 김현,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공명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민족애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발굴되고 우리 민족의 재보로 빛을 뿌리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민족음악과 무용, 미술을 발전시키고 민족체육을 장려하는 등 우리의 사회주의민족문화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살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받들어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륭성번영하는 강국으로 더욱 빛내여나가는데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적으로 등록된 비물질문화유산들에 증서가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13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개막

제13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개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나노기술국,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 농업과학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를 비롯한 30여개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나노리론, 측정분과, 나노재료분과, 나노농업, 의학분과로 나뉘여 진행되는 발표회에는 90여건의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그가운데는 《레이자립도분석기와 분광광도계를 리용한 은용액의 립도특성》, 《나노규소비료의 공업적생산방법과 농업에 도입》 등 나노재료의 제조와 측정, 응용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강국건설에 도입되여 온을 내고있는 연구개발성과들을 반영한 론문들이 있다.

전시회에는 지효성나노비료, 나노효정수, 그라펜, 나노실리카공기정보온칠감, 건강미용비타민, 나노생물칼시움, 비진영양사탕과 키크기영양알, 바이코민주사약 등 농업, 금속, 건재, 경공업, 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나노기술도입성과를 보여주는 100여종의 제품들과 재료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24일 국가나노기술국에서 진행되였다. 제13차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는 28일까지 진행되게 된다.

유엔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 진행

유엔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가 24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주조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외무성, 국토환경보호성, 농업성 등의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지속적이며 회복력있는 인간개발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연설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식량 및 영양안전, 보건, 물위생, 교육, 자연에네르기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유엔기구들의 협조계획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이날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는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할 중국대표단 도착

조중국경공동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가할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대표단이 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결정책의 총파산은 절대로 막을수 없다

지금 온 겨레는 선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암살책동을 단호히 쳐갈기며 자주의 핵강국, 천하제일강국으로 무섭게 솟구쳐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에서 통일조국의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고있다.

그런 가운데 남조선 각계는 보수당국이 《대북강경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로부터의 출로를 찾을것을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에서까지 우리 공화국을 《전략적경쟁자》로 보면서 조미대화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판에 보수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동족대결을 고집하며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고 괴뢰패당을 비난하고있다. 이런 속에 야당들도 《대북제재》만을 외우는 집권세력의 외교전략은 허점투성이라고 하면서 《대북강경정책》의 부당성을 폭로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결과들은 괴뢰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정책이 배격당하고있으며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이 남녘민심의 요구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내외가 한결같이 평화롭이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고 조선반도에 첨예한 긴장국면이 조성된 원인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과 그에 적극 추종해온 박근혜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에 있다. 대세의 흐름도 판별 못하면서 다 기덜이 난 《북핵포기》간판을 들러메고 외세와의 공모결탁으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괴뢰들의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괴뢰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은 현 북남관계파국의 근원이다.

동족을 우선시하고 동족끼리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지만 외세를 중시하고 그에 의존하면서 동족과 대결하면 대화와 협력의 길이 막히고 불신과 긴장이 고조되여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된다. 이것은 곡절많은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현 남조선당국에 대해 대범한 아량을 보여주면서 동족끼리 손을 잡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동족을 덮어놓고 적대시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오늘과 같은 극도의 파국상태에 빠뜨렸다. 괴뢰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아량과 성의를 《랙페기가 없는 평화공세는 무의미》하다느니, 《진정성없는 위장공세》라느니 하는 악담질로 헐뜯으면서 대결정책을 고집하였다.

특히 역적패당은 날로 엄중해지는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에 대처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도발》과 《위협》으로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갔다. 괴뢰패당속에서 《대북선제타격》 폭언이 매일과 같이 터져나오는 속에 청와대악녀까지 전면에 나서서 《자유의 터전》이니 뭐니 하며 《할복》을 선동하고 《제도통일》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지금 괴뢰들은 《북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제재를 더한층 강화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사상 류례없는 최절정에 달하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민족공동의 재부이며 조선반도평화수호의 보검인 동족의 핵을 없애달라고 상전의 바지가랭이에 끈떠지게 매달리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 박근혜역적패당의 반민족적망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괴뢰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이 총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의 력대 괴뢰통치배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실시하면서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해나섰다. 하지만 괴뢰들의 동족대결정책은 매번 실패를 면치 못했으며 반통일대결에 미쳐날뛴 역적배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속에 파멸의 시궁창에 처박히군 하였다.

박근혜패당의 동족대결정책도 결코 달리될수 없다.

지금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북남관계를 사상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미쳐날뛰는 괴뢰집권자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경악과 분노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야말로 《무모한 도발과 전쟁의 화근》, 《민중을 전쟁공포속에 몰아넣는 주범》으로 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북남관계문제전문가들도 조선반도를 둘러싼 대국들의 세력싸움에서 살아남수 있는 유일한 길인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스스로 가로막음으로써 완전히 고립되는 처지에 빠진 역도를 신랄히 조소하고있다.

괴뢰들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를 막아보려고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소동에 미쳐날뛰여왔지만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어리석은것이였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에 당당히 맞설수 있는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위협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이미 틀어쥔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시슬프르게 벼려갈것이다.

최강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며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그 어떤 군사적위협도 제재압박소동도 통하지 않는다.

괴뢰들이 아무리 《대북압박공조》의 강화니 뭐니 하며 이미 떡빠진 반공화국제재놀음에 입김을 불어넣고 파산의 위기에 빠진 대결정책을 유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 잡는 격의 쓸데없는 몸부림일뿐이다.

사상 류례없는 동족대결정책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던 괴뢰들은 지금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지는 꼴이 되고말았다.

민심의 비웃음과 온 민족의 규탄속에 바람에 흩날리는 가랑잎신세가 된 박근혜역적패당이 외세의 옷자락에 더욱 바싹 매달리는것으로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 하지만 그것은 오산중의 오산이다.

지금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애써 외면하면서 헛된 미련을 품고 동족대결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대세의 흐름도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자들의 가소로운 망동이다.

동족대결로 명줄을 이어가는 반역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박근혜역적패당이 아무리 발악해도 동족대결정책의 총파산을 절대로 막을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심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며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는 박근혜역적패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허 영 민

선제공격기도를 드러낸 위험한 전쟁모의

며칠전 미국에서 상전과 주구들사이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모의가 잇달아 벌어졌다.

미국은 괴뢰들과 제41차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선반도의 안보상황과 군사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관련한 공동이를 벌리였다. 다음날에는 일본까지 끌어들여 합동참모본부의장회의라는것을 열고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에 대비한 공조》와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론의의 초점은 그 누구의 《도발을 억제하고 단호하게 응징》할수 있는 그 무슨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과 괴뢰들의 제41차 군사위원회 회의와 미국, 일본, 남조선 합동참모본부의장회의는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한 북침선제공격을 현실화하고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려는 위험천만한 전쟁모의판이였다.

미국과 괴뢰들은 제41차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의 자위적인 군력강화조치를 그 무슨 《도발》로 걸고들면서 남조선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과 《맞춤형억제전략의 실질적강화》에 대해 쑥덕공론을 벌렸다.

미국과 괴뢰들이 운운하는 《확장억제력》이란 재래식무력은 물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포함한 모든 령역의 군사적력량을 의미한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이번에 《확장억제력제공》과 《맞춤형억제전략의 실질적강화》를 모의한것은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대량적으로 투입하여 《3단계맞춤형억제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흉악한 계책의 발로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고강도북핵대응》의 간판밑에 들고나온 《3단계맞춤형억제전략》은 이미전에 짜놓은 《맞춤형억제전략》을 보다 구체화한것으로서 극히 도발적인 북침핵선제타격각본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제41차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3단계맞춤형억제전략》의 실행을 론의한것은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핵선제타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매우 엄중한 군사적도발로 된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이 합동참모본부의장회의라는것을 벌린것도 스쳐지날수 없는 사태이다.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에 합동참모본부의장회의가 처음으로 열린것은 2014년 7월이였다. 그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 회의가 열린 사실은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을 위한 미국, 일본, 남조선의 군사적공모결탁이 절임없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3각군사동맹에 비끄러매고 주구들을 내몰아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한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각본에 따라 박근혜일당은 지난해말 일본당국과 성노예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꾸며냈다. 이로써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고 3각군사동맹의 구축도 본격화되게 되였다. 지금 미국, 일본, 남조선의 합동군사훈련도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이러한 속에 미국에서 합동참모본부의장회의까지 벌어진것은 3각군사동맹의 조작이 사실상 시간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국이 고삐를 틀어쥐고 미친듯이 내모는 3각군사동맹마차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핵전쟁발발위기를 고조시키는 파국적후과를 빚어내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조성된 사태는 우리가 날로 가증되는 적대세력들의 핵선제공격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가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미국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로 겨우 연명해가고있는 박근혜패당따위가 상전을 등에 업고 우리에게 핵선제공격을 가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만일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감히 북침전쟁의 불써를 날린다면 무지비한 징벌의 불벼락을 피할수 없을것이다.

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선제타격은 결코 미국과 괴뢰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박근혜역적패당의 무모한 북침선제공격기도는 극악무도한 반역무리의 종국적멸망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심 철 영

민족을 등진 반통일역적의 발광

《앞으로 통일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북관계의 실질적전진과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이것은 지난해 2월 괴뢰통일부 장관후보로 지명된 홍용표역도가 기자들에게 호기있게 던진 수작이다. 그로부터 얼마후 장관임명을 위한 《국회》인사청문회장에서도 이자는 그 무슨 《남북관계발전》이니, 《통일》이니 하며 재잘거렸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감투를 뒤집어쓴 후의 언행은 그야말로 정반대였다.

이자가 취임후 처음으로 제친 수작은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자가 북남관계개선이나 화해, 협력소리는 한마디도 없이 뚱딴지같은 《북핵포기》나발을 불어댔기때문이였다.

홍용표역도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그 무슨 《도발》로 헐뜯으며 주제넘게 《북의 핵은 용납할수 없다.》느니,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수 없다.》느니 하는 잠꼬대같은 소리를 망탕 제쳐댔다. 그리고는 북남대화의 문을 쾅쾅 닫아매고 박근혜역도의 대결정책실행의 앞장에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지경에 몰아넣었다.

역도는 우리의 거듭되는 대화제안들을 《책개발책임을 덮어버리려는 면피용》이라고 헐뜯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를 《위장평화공세》, 《통일전선전술》이라는 악담질로 거부해나섰다. 그리고 《대북제재》와 《압박》을 부르짖으며 개성공업지구마저 란도질하여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을 끊어놓는 반통일적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홍용표역도는 청와대악녀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면서 북남관계의 길목을 타고앉아 온갖 못된짓을 일삼는것으로 겨레의 불타는 통일지향을 우롱, 모독하였다. 역도가 통일부 장관자리에 들어앉은지 2년도 안되는 사이에 저지른 반통일적죄악은 지난 수십년간 선임자들이 저지른것과 대비도 되지 않을만큼 엄중한것이다.

홍용표역도가 박근혜의 비위를 맞추며 다 꿰진 동족대결의 북풍을 손목이 시도록 두드려왔지만 얻은것이 과연 무엇인가.

명색뿐이던 괴뢰통일부는 사실상 완전히 파산물락되고 홍용표는 가련한 무직전달군신세가 되고말았다.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인간쓰레기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뻔질나게 찾아다니고 《통일노래경연》이니, 《통일음식만들기》니 하는 해괴망측한 놀음에 머리를 들이밀겠는가. 북남관계를 깨깨 망쳐놓고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들이치는 이 얼간망둥이의 추태는 내외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홍용표가 미치광이로파인 박근혜를 정신없이 따라다녔지만 청와대의 노복, 핫바지, 시라소니, 얼뜨기라는 오명만 잔뜩 얻었고 이자가 도사리고있는 통일부에는 반통일부, 분렬고착부, 제재부, 깡통부, 밥통부 등 온갖 창피스러운 딱지가 다 붙었다. 오죽했으면 한 야당의원이 《국회》에서 홍용표와 통일부가 북에 대해 무지하고 핵문제해결에 무능하며 모든 책임을 북에 떠미는 무책임과 제재일변도의 무대책에 빠져있다고 하면서 《4무론》을 주장해나섰겠는가.

하지만 천성이 뻔뻔스럽기 이를데 없는 홍용표역도는 아직도 뒤목이 뻣뻣해서 동족을 겉고들고 모해하는 허튼수작을 정신없이 주어섬기고있다.

박근혜역도의 임기후반기 《대북정책》을 론하는 자리에서 이자는 집권 3년간 저들이 북에 회담을 몇차례 제안했고 몇번 대화를 시도하였었는데 북의 수소탄시험으로 그 모든것이 중단되였다고 나발질하면서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교활하게 놀아댔다. 그러면서 제재를 우선시하여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의미있는 대화》를 하자는것이 저들의 립장이라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북남관계의 파국적사태를 빚어낸 저들의 반통일적죄악을 가리우고 책문제를 구실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흉악한 계책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그 어떤 주전이나 주대도 없는 홍용표역도의 꼴통에는 오직 청와대안방주인의 비위를 맞추어 개도 안물어갈 그 잘난 장관벙거지를 계속 쓰고있을 너절한 궁냥만 있다. 바로 그래서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니, 《근본적위협제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니 하고 청와대 미친 함미의 앵무새노릇을 하면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최근 박근혜역도는 눈만 짜개지면 《대북제재》효과가 뚜렷해지고있다는 가소로운 망발을 늘어놓는가 하면 《북핵포기》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며 총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유지하려고 발악하고있다.

홍용표역도는 박근혜의 그 스산한 치마바람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반통일대결의 앞장에서 제일 분별없이 해덤비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망동이며 비루한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산송장의 마지막발버둥질에 불과하다.

홍용표역도가 박근혜의 더러운 손발이 되여 동족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릴수록 그것은 민족을 등진 극악한 반통일역적으로서의 자기의 추악한 몰골만을 더욱 드러내놓게 될것이다.

통일부의 간판을 내걸고 반통일적망동을 일삼는 홍용표와 같은 대결미치광이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본사기자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사회의 분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대전지역의 74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 정당지부로 구성된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가 대전에서 시국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민심을 외면하고 민생도, 민중의 생명안전도 안중에 없이 권력유지와 측근들의 보호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는 현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박근혜가 중요한 결정을 해외에 나가 전자결제로 하고 때로는 민중의 목소리를 개, 돼지소리로 취급하였다고 단죄하였다.

박근혜가 인민들의 항거의 목소리로 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식물인간이기때문에 고비마다 현실을 도피하여 해외로 도주한것이라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의 동족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였고 《싸드》배치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생과 민중의 생명안전을 위해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

박근혜 《정권》이 《정권》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박근혜가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것이 백남기농민에 대한 의리를 다하는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떨쳐일어나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대전시민 시국호소문이 발표되였다.

호소문은 《세월》호참사와 백남기농민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이 땅에서 민중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있다고 하면서 호소문은 로동자, 농민, 빈민,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싸드》배치책동 등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을 불아오는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강조하였다.

리화녀자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부정부패행위의 해명을 요구

보도들에 의하면 리화녀자대학교 교수협의회소속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수들이 19일 괴뢰패당과 련계된 대학내 부정부패행위의 해명을 요구하여 대학안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여 80여일째 본관에서 농성투쟁을 벌리고있던 학생들을 비롯한 5 000여명이 여기에 합세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대학총장이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행위와 결탁된 최순실의 딸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 사를 밝혔지만 부정부패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순실의 딸과 관련한 학교내 행정, 입학관련 의혹들이 보름이 지나도 보도되고있지만 이에 대한 대학측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교수들이 제기한 3가지 요구사항중 총장사퇴라는 한가지만 받아들여졌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볼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집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이번의 부정부패행위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대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죄악이라고 단죄하였다.

이번 부정부패행위에 총장이 련관되였다는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사법처리되여야 할 범죄행위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같은 사태의 근본원인은 재단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에 있다고 까밝혔다.

대학측은 농성투쟁을 마친 학생들이 학교생활로 복귀할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총장선출제도 민주화》, 《학사운영 정상화》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권력유착, 학사문란, 비리총장 물러가라》고 웨치며 교내에서 시위행진을 하였다.

언론들은 리화녀자대학교에서 교수들이 나서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한것은 학교력사상 처음 있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박근혜일당에 대한 사회적분노가 극도에 달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악정속에 만연되는 어린이학대행위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세상에 부럼없이 활짝 꽃피여나고있다.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높이 울려나오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세상사람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절감하고있으며 끝없이 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하지만 오늘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린이들이 극심한 학대행위로 불안과 공포속에 시달리고 지어 목숨까지 빼앗기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남조선에서는 12살미만의 어린이 197명이 살해당하였으며 어린이학대건수는 총 4만여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그 수가 1만 1 715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역도가 집권한 이후 어린이학대행위가 대폭 늘어났다고 평하였다.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사실이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때려죽이거나 약을 먹여 죽인 다음 산에 묻어버리는 등 온갖 끔찍한 살인행위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어린이집》들에서 감행되는 학대행위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는 2살도 안되는 어린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머리온 수건을 입에 틀어막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뛰여놀지 못하게 침대에 묶어놓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련속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4살 난 어린이들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찌르며 고통을 주었는가 하면 김치를 먹지 않는다고 하여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쳐 바닥에 쓰러뜨린 폭행사건이 드러나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냈다. 남조선의 《어린이집》들에서는 기강을 세운다는 간판밑에 생마늘과 고추먹이기, 목욕통에 머리담그기 등 각종 학대행위가 예상사로 되고있다. 사태가 이러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어린이집》이 어린이보육시설인지, 어린이형무소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박근혜역도는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으면서 그 무슨 《책임보육체제》니, 《무상보육확대》니 하는 귀맛좋은 나발들을 불어댔다. 특히 어린이학대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뿌리뽑겠다.》느니, 《특단의 대책을 세울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하지만 실제로 박근혜패당이 한것이란 《영유아보호법》을 괴뢰국회에서 부결시키고 어린이학대방지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는것과 같은 반인민적망동을 부린것뿐이다.

반면에 눈물과 설움, 공포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불우한 운명을 강건너 불보듯 하며 《북인권법》과 《테로방지법》을 비롯한 북남대결과 파쑈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악법조작놀음에 광분하였다. 하기야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검푸른 바다에 수장되여 숨져가고있던 그 시각에도 살려달라는 그들의 피타는 애원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제불장만 본 천하의 악녀인 박근혜역도가 어린이학대행위근절에 관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남조선에서 괴뢰당국의 정책자체가 반인민적이니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어찌 만연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현실은 박근혜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들고앉아있는 한 남조선에서 온갖 사회악과 함께 어린이학대행위도 근절될수 없으며 어린이들의 처지는 날로 더욱 불행해질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불행의 화근인 박근혜역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자식들의 운명도 담보할수 없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청와대마녀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엄 수 련

누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얼마전 괴뢰법원이 미국대사 리퍼트에게 정의의 징벌을 가한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와 《구치소교도관폭행》 등의 혐의를 들씌워 징역 12년형을 들씌우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김기종은 남조선에서 끊임없는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고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미국대사 리퍼트에게 남조선인민들의 이름으로 단호한 징벌을 가하였다. 그의 행동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바라고 오만한 침략자 미제를 단죄하는 남녘민심을 반영한것으로서 범죄로 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하지만 《테로》니, 《종북》이니, 《배후세력》이니 하며 그를 무지막지하게 제포하고 온갖 박해를 가해온 괴뢰패당은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끝내 중형을 들씌웠다.

그러면 박근혜와 그 일당이 미국대사징벌사건이후 오늘까지 감행해온 역겨운 친미사대적망동들과 김기종에게 가한 파쑈적악행에 대해 다시 보기로 하자.

미국상전에게는 삽살개처럼 아양을 떨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고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에게는 사냥개처럼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는 추악한 매국노, 파쑈광이 바로 박근혜패당이다. 이 쓸개빠진 역적들은 지난해 3월 5일 서울의 한 강연회장에서 미국대사징벌사건이 일어나자 저들의 추악한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중동행각중 현지에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박근혜역도는 화들짝 놀라 그 무슨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공격》이니, 《용납될수 없는 행위》니 하고 괴대를 돋구면서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고 폭압을 선동하였다.

역도의 골통에는 어떻게 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상전들에게 친미에서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자기의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한편 반공화국대결기운을 고취하고 진보민주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란압말살함으로써 심화되는 《정권》위기를 모면하려는 흉심이 짝 차있었다.

역도의 이 계책에 따라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김기종의 그 무슨 《북과의 사상적련계가능성》을 운운했는가 하면 괴뢰검찰은 《종북잔당의 발악》이라느니 뭐니 하며 어마어마하게 특별수사그루빠를 구성하고 가혹한 조사놀음을 벌리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법률관계자들은 당국이 사건수사에 수많은 검찰력량을 투입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사건을 《테로행위》로 규정하였다고 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혀 없는 조사결과발표와 정치적반대파숙청을 노린 검거선풍만이 예상된다고 평하였다.

아니나다를가 괴뢰패당은 김기종이 금강산을 관광한 사실은 물론 그의 평상시생활까지 모두 우리와 련결시키면서 《종북》소동에 미쳐날뛰였다. 지어 야당의원들까지 거론하며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남조선언론들이 까밝힌바와 같이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종북몰이》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박근혜괴뢰당이 미국대사징벌사건을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에 악용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박근혜괴뢰당이 미국대사징벌사건과 관련하여 파쑈폭압과 《종북》소동에 열을 올리였지만 그것은 통할수 없었다. 남조선인민들은 《같이 아닌 폭탄을 들었어야 했다.》고 하면서 미국대사에게 칼세례를 안긴 김기종이야말로 애국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괴뢰당국이 미국상전에 대한 아부굴종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고 파쑈폭압으로 잔명을 부지해가는 괴뢰역적패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김기종에게 징역형을 들씌우고야말았다.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망동인가.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고 가혹한 형벌까지 가하는 남조선이야말로 거꾸로 된 세상이다.

김 철 남

미국은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주범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핵전쟁발발계선에로 치달고있다. 바로 미국때문이다.

최근 미호전광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과 조선반도해역에서 사상 최대의 해상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함타격단이 투입된 연습은 선제타격작본에 따라 조선반도해역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과 로케트기지 등 핵심시설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위험한 불장난이였다. 《대량응징보복작전계획》의 현실성을 검열한다는 미명하에 감행된 연습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부의 우두머리들이 떼를 지어 항공모함에 기여올라 지켜보는 가운데 감행되였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것으로서 호전광들의 광기를 그대로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온통 화약내를 풍기며 들아친 핵항공모함타격단은 연습이 끝난 이후에도 물러가지 않고 남조선의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미국은 항공모함뿐아니라 다른 전략자산들도 남조선에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자주 벌리고있다. 얼마전에 괌도에 있는 핵전략폭격기편대를 남조선상공에 끌어들여 위력한 투하연습을 벌렸다.

미국은 최근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수많은 군함들과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주요목표로 하는 도발적인 해상합동군사훈련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하늘과 바다를 통해 핵전략자산들까지 끌어들여 핵전쟁소동을 벌려며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긴장상태에로 몰아가는 미국의 책동을 결코 례사로운 일로, 년례적인 연습으로 간주할수 없다.

먹장구름이 자주 끼면 폭우가 쏟아지기마련이다. 력사는 《년례적》이라는 간판밑에 끊임없이 감행되던 전쟁연습이 상대측이 해이된 틈을 타서 순식간에 전쟁으로 이어졌다는것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미국은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함타격단의 조선반도진개가 조선의 《위협에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보내는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고 공공연히 내뱉고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과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가 그 무슨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파시성, 위협성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인다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불의에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저들의 검은 속심을 감추어보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수작이다.

외세의 핵무기들에 의해 한 나라, 한 민족의 생존공간이 극도로 위협받을 때 그에 강력히 대처해나가는것은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로골적인 핵위협공갈과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생명안전과 행복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한데 대하여 오히려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미국이 대양건너 수만리 떨어진 조선반도에 핵타격수단들을 들이밀면서 《위협》나발을 불어대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남의 집에 흉기를 들고 뛰여드는 강도가 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무기를 들고 일떠선 주인더러 자기를 위협한다고 아무재기를 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은 소가 웃다가 꾸레미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황당한 궤변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벌려놓는 불장난은 례외없이 북침선제타격체계를 보다 완비하여 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자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다시말하여 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투입하고있는 미국의 속심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임의의 시각에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자는데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긴장격화의 근원이며 세계정화의 암적존재이다.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통해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남조선을 발판으로 삼고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으며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더러운 제손아귀에 그러쥐기 위해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흉악한 침략야망은 물거품이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끈질긴 제재와 핵위협공갈속에서도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의 국력강화에 제일 바빠하는것은 미국이다.

끈질긴 대조선제재압박책동도 통지박산날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는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성해놓은 최악의 긴장상태를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미국때문에 조선반도의 정화가 위협받고있으며 세계가 불안정해지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들던 미국은 핵무기현대화와 새로운 첨단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금 미공군은 1시간내에 세계의 그 어떤 목표도 타격할수 있는 일명 로케트추진활공기라는 극초음속미싸일개발을 다그치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개발중인 미국의 극초음속미싸일이 핵무기로 혼동되여 우발적인 보복타격, 핵전쟁까지 초래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미국은 《적》의 이동식미싸일발사차량이 이동중에 있거나 미싸일을 발사하기 전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짧은 시간안에 타격해야 하기때문에 빠른 속도의 무기가 필요하다느니, 고정된 목표물보다 이동하는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유효한 무기라느니, 미래의 전쟁은 극초음속무기체계가 지배하게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가까운 년간에 시험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군사적우세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호전광들의 책동이 더욱더 분별을 잃고 감행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개발하고있는 새로운 극초음속미싸일은 철두철미 우리를 겨냥한것이다. 미국은 극초음속미싸일의 요격대상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있는 조선의 이동식미싸일발사차량이라고 떠들고있다.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장본인들이 덴겁하여 《안보위협》을 운운하며 새로운 첨단무기개발을 합리화하려 들어도 침략자의 정체는 가리울수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누가 도발자이며 침략자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무기개발책동을 팔짱을 끼고앉아 구경만 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핵타격수단들로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미국을 항시적으로 위협할수 있는 강력한 핵선제공격능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핵전쟁광신자들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제가 핵무기로 우리 나라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 우리 나라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이다. 태평양상의 미군기지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핵조준경안에 들어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우리 식의 막강한 정밀핵타격수단들로 대응할것이다.

그 무엇으로써도 제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 미국본토를 재가루로 만들수 있는 핵타격수단을 갖춘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겠다는것은 참으로 우둔한짓이다.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고 덤벼들어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원자탄을 쥐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며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려던 미국을 보병총으로 타승하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적군대와 인민이다. 만일 미제가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아메리카합중국의 종국적패망사를 써주자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멸적의 의지이다.

미국은 반미전면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최후승리를 안아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의 의지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리 현 도

외국의 벗들이 강조

세인을 경탄시키는 조선의 모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의 벵마루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목격한 외국의 벗들속에서 경탄과 부러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분학연단 위원장 쏭코리 바로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지개벽된 조선의 현실에 황홀함을 금할수 없었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가며 세계가 보란듯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는 조선의 모습은 정말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의 눈부신 발전은 미국과 서방의 반공화국선전의 허황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이야말로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천국이다.

로씨야 연해변강행정부 부장 빠르게이 네하에브는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은 최근년간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체류기간 돌아본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굵직의 생산기지들은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다.

특히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에게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는 과학기술전당과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은 규모와 건축술에 있어서 참으로 대단하다.

질좋고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짱짱 생산하고있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대동강돼지공장참관을 통하여 조선의 경제적잠재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웃나라인 조선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일조우호교육교류대표단 단원 가토 가즈노리는 조선의 눈부신 발전면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짧은 기간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시대의 건축물들은 선군조선의 국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조선로동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정당하며 최후의 승리는 조선인민의것이다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단장 드미트리 꼬스펜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세월을 주름잡으며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하고있다.

해마다 방방곡곡에 인민을 위한 새 거리와 세계적인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이 경이적인 현실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앞으로도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만리마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날에 날마다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유엔총회 제71차회의 6위원회 회의 진행

유엔총회 제71차회의 6위원회(법률) 회의가 14일 유엔본부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안건 《유엔헌장 및 기구의 항강화문제》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우리 나라 대표는 연설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국제정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할것을 규제한 유엔헌장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데 대한 문제, 유엔안보리사회를 비롯하여 유엔이 더이상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마당으로 도용되지 말고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안보리사회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민주화를 하루빨리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유엔의 역할강화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으며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대로 미국이 비법적인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모든 침략무력을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괴뢰대표라는자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사회《결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되였다느니, 《북조선의 핵 및 탄도미싸일개발이 국제정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안보리사회《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도발해나왔다.

우리 대표는 즉석에서 답변권을 행사하여 조선반도의 정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암적존재인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성과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자료적으로 까밝혔다.

그는 군통수권을 외세에 섬겨바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굴종하여 통족을 반대하는 대규모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남조선괴뢰들의 처사를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조선반도정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엄중한 도발로 규탄배격하고 주권을 외세에 통째로 내맡긴 남조선은 유엔의 성원자격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단죄하였다.

회의에서 꾸바와 이란, 남아프리카를 비롯한 륙륙불가담나라 대표들은 특정한 나라들이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유엔헌장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들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유엔안보리사회를 시급히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륙륙불가담나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일방적인 제재 등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경제적강압조치들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였다.

미국을 길들이는 나라—조선

브라질주체사상연구센터가 5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미국을 길들이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우리 공화국이 반세기이상 끊임없이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여 핵보유의 길, 핵억제력강화의 길을 택하였으며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과 함께 당당한 핵강국으로 커연히 솟아오른데 대하여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일삼던 미국이 거꾸로 조선의 핵과 미싸일에 질겁하여 아우성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김정은령도자의 《무쇠마치》가 오바마라는 《소재》를 마음대로 두들겨때려 가공하고있는것이다.

2013년 3월 미국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상황이 조성되였을 때 온 세계에 공개된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소식은 미국정객들을 기절초풍케 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또다시 핵전쟁연습을 벌려놓았던 올해 3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조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들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제재는 이미 해볼대로 다 해보았으며 전쟁은 곧 미국의 종말로 이어질수 있다.

미국의 선택안은 조선과 대화를 진행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이다.

강권과 전횡을 부리는데 습관된 미국의 정객들은 이렇게 하는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것이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로씨야의 한 인사는 《조선의 핵보유야말로 온갖 전횡을 다 부리고있는 미국을 길들이는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적범위에서 강화되는 반마약투쟁

세계적으로 마약람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있다.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약 2억 5 000만명이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약 100만명 더 늘어난것으로 된다.

특히 서방나라들에서 마약람용행위가 성행하고있다. 류통되는 지폐의 대부분에 코카인이 부착되여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던 미국에서는 마약람용으로 2014년 한해동안에만도 4만 7 000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청소년마약사용자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마약람용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는 유럽나라들에서 해마다 마약사용에 소비되는 자금은 270억US$가 넘는다.

마약은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파괴할뿐아니라 온갖 사회악을 조장시키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마약사용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식물인간으로 되여가고있다. 마약사용과정에 에이즈, 간염과 같은 전염병들이 퍼져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러한 사회적문제들은 여러 정치적, 경제적문제들과 뒤섞이면서 해당 나라들의 사회적기초를 위협들고 위협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벌이에 환장한자들은 마약밀수, 밀매에 열을 올리고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범죄조직으로 알려진 일본의 폭력단체인 야꾸자의 수익원천은 다름아닌 마약밀매라고 한다.

서방나라들에서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극악한 범죄의 30~50%가 마약과 관련되여있다고 한다.

인간의 생존과 사회발전을 엄중히 저애하는 마약의 전파를 막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때문에 서방나라들에서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든 마약범죄는 가장 엄중한 범죄로 취급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마약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하고있다. 사형은 자국민뿐아니라 마약밀매에 가담한 외국인들에 한해서도 적용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에꽈도르에서는 반마약작전을 벌려 국제마약밀매조직을 적발하고 19명의 범죄자들을 체포하였다.

지난 5월까지 이 나라에서는 30여t의 마약을 몰수하였다.

포스따 리까에서는 어려차례 진행한 반마약작전과정에 10t이상의 코카인을 몰수하였다. 반마약짬빠니야를 강화하고있는 필리핀에서는 최근 몇달사이에 수많은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1만 4 798명을 체포하였다. 이 기간 약 70만명의 마약사용자들과 밀매업자들이 당국에 자수하였다고 한다.

여러 나라들에서 마약생산근원지를 없애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한편 주민들이 반마약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분위기조성사업이 벌어지고있다.

《국제마약람용과 비법거래반대의 날》로 제정된 6월 26일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 마약의 해독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주제의 선전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라이에서는 병원들에 꾸려져있는 마약금지센터를 잘 운영하여 주민들을 교양하고있으며 딴마에서는 마약의 해독성을 보여주는 미술작품, 선전화, 만화 등을 많이 만들어내놓고있다.

반마약투쟁은 오늘날 국가적규모를 벗어나 국제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다.

지난 4월 유엔본부에서는 세계마약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가,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유엔국경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되였다.

회의들에서는 마약범죄를 하루빨리 근절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토의되였다. 그런가하면 대륙별, 지역별기구들이 마약범죄와 관련한 문제들을 자주 취급하고 반마약투쟁에서 나라들사이의 정보교류와 협동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행되고있다.

얼마전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지역에서 마약밀매가 증가하는데 대처하여 해당 사법당국들을 위한 통합자료기지신설과 공동순찰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사회를 좀먹고 파괴하는 마약의 전파를 막기 위한 국제적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배 금 희

미국의 싸이버공격위협 비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16일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싸이버공격위협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싸이버공격위협에서 유일하게 새로운것은 미국이 싸이버공격을 하고있으며 싸이버공격으로 남을 위협한다는것을 처음으로 고위급에서 인정한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국제판계규범에 어긋난다. 미국은 많은 내부문제들을 안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선거자들의 주의를 저들의 내부문제로부터 딴데로 유도하려는 낡은 수법에 매여달리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주시하고있다.

그는 미국이 《원쑤》를 만들어 국내문제에 대한 주의를 딴데로 유도하려고 책동하고있다고 까밝히고 《이란핵위협》이 그 실례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단합을 이룩할것을 호소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16일 한 발언에서 사회적단합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자면 호상 신뢰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견해를 같이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일부 정부관리들이 이 사업을 옳게 내밀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일치단결이야말로 사회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수행하는데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이라고 강조하였다.

테로반대투쟁 강화

싱가포르에서 17일과 18일 대규모반테로연습이 진행되였다.

전국의 360여곳에서 벌어진 연습에는 3 200명이상의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연습의 목적은 지역에서 테로위협이 날로 커가고있는데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있다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이란과 메히꼬가 18일 로동력리용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최근 남아프리카와 케니아는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여러건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협정들은 남아프리카대통령의 케니아방문과정에 체결되였다 한다.

반미집회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19일 반미집회가 벌어졌다.

미국대사관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끈질긴 지배주의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과거 일본의 원자탄개발책동의 흑막을 파헤친다(3)

비밀리에 감행된 극악한 조선인살륙만행

20세기 전반기에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본이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사람들의 고혈을 얼마나 악착하게 짜내고 어떻게 잔인하게 학살하였는가와 같은 범죄적만행자료들은 이미 신문, 통신, 방송을 비롯한 여러 출판보도수단들을 통하여 많이 공개되였다. 그러나 그 자료들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조선인착취와 살륙만행의 전부가 아니다. 아직도 흑막속에 묻혀 세상에 공개되지 못한 자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일제가 원자탄개발비밀계획실행의 기본거점으로 삼았던 우리 나라 북부의 흥남지구에서 감행한 범죄적만행들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번에 과거 일본의 원자탄개발책동의 흑막을 파헤치면서 일제가 어떤 범죄적만행들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의 만행들을 립증할수 있는 생존자들이 한명도 없었기때문이다.

원인은 일제가 원자탄개발을 위해 동원하였던 조선인로동자들을 모두 학살한데 있었다.

일제가 원자탄개발비밀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교활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은 《아연공장》(《NZ》공장)을 건설할 때 로력을 현지주민들이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 온 사람들로 충당하고 그들의 고혈을 악착하게 짜낸 다음 모두 학살한것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당시 흥남지구에는 전기, 화학공업을 중추로 하는 일제의 군수공업이 기본을 이루고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일제는 흥남에 알루미니움공장, 마그네시움공장, 카바이드공장 등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였다. 그리고 이 공장들에서 일할 로동자들을 조선의 곳곳에서 강제적으로 끌어왔다.

1970년에 일본인 가마다 쇼지는 자기가 쓴 도서 《북조선에서의 일본인고난기—일본질소공장의 최후》에서 《《NZ》공장건설명령을 받은 후 다른 공사들을 모두 중지하고 력량을 여기에 집중하였다. 필요한 작업을 위해 전조선적으로 인력을 모아 설비건설을 다그쳤다. 그밖에 무족되는 로력을 충당하기 위해…학생 약 2 000명을 동원하였다. 형무소의 수인 1 000여명도 동원시켰다. 전쟁말기 흥남지구 여러 공장들에서 일하던자는 모두 4만 5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흥남의 어느 한 화학공장만 보더라도 1932년경에 5 600명이던 로동자들이 1936년경에 8 000여명, 그후에는 1만여명으로 늘어났다. 일제패망직전까지 이 지구 군수공장들은 물론 그밖의 각종 공장, 기업소들과 항만 등에서 일한 로동자수는 10만명을 헤아렸다.

일제가 원자탄을 개발하기 위해 세워놓은 《아연공장》은 194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그 건설에 숱한 조선인로동자들이 동원되였다.

일제가 조선사람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강제로동을 강요했는가는 원자탄개발과 관련된 한 공장에서 파장을 하였다는 일본인 오시마 미끼요시가 남긴 자료의 한토막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그는 《매일 동원할수 있는 최대수자를 충당하였고…각성제를 먹이면서 밤새껏 일시켰다. 당시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공장로동자들은 이렇게 1개월이상 일하면 모두 죽고말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글을 남겼다.

흥남에서 살고있는 한 주민은 《일제놈들이 《NZ》공장을 건설할 때 이 지역 로동자들이 아니라 주변지역들에서 온 일공로력을 많이 썼는데 한주일간 로동자들을 일시키고 집에 보낸다고 하면서 배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물에 빠뜨려죽였다. 비밀보장때문에 그랬다.》라고 폭로하였다.

일제가 다른 지역들에서 온 날품팔이군들을 많이 쓴것은 그들을 모두 조용히 학살해도 의문을 품거나 진상을 밝히자고 할 사람들이 없기때문이였다. 일제는 원자탄개발과 관련이 있는 어느 한 공장에서도 중요설비를 다 설치한 다음 그에 동원되였던 조선사람들을 100% 학살하였다고 한다.

이번 조사과정에 일제가 철저한 비밀에 붙였던 《아연공장》에서 원심분리법에 의한 우라니움농축연구와 함께 중수감속제에 의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플루토니움추출을 시도하였다는 증거들을 일정하게 걷어쥘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살해하였는가 하는것이다.

현지주민들은 자기들이 보고 느낀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패정때 건설한 건물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단층이였다. 그 건물은 벽두께가 매우 두꺼웠다. 해방후 여러해가 지나 ××강화실로 리용하였는데 1년에 1명씩은 죽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면 메스껍고 토하고…그래서 분명히 그 건물에서 방사능이 센 물질을 다루었을거라고 생각하였다. 그 건물밑에 지하통로가 있었는데 그앞의 건물과 련결되여있었다. 그 앞건물은 사제실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지하통로를 통해 사제실로 날라갔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1970년대에 우리가 교사건설을 하는데 앞에 굴뚝이 몇십m 잘리는게 있었다. 그을음이 있는것을 보아 리용한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 이상해했다. 여기에 왜 굴뚝이 있는가, 보이라굴뚝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제실에 있는 시체들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일제는 원자탄연구와 개발에 광분하면서 비밀을 알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선사람들은 모두 학살하였다. 바다물속에 빠뜨려죽이고 불에 태워죽였으며 방사선피해를 입혀 살해하였다.

일제가 원자탄개발을 위한 비밀계획실행의 기본거점을 조선반도로 삼은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도 흥남지구에서는 적지 않은 조선사람들이 방사선피해를 입고 일찌기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나군 하였다. 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강화실에서 1년에 1명씩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준 방사선피해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어느 한 기업소의 일군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불상사들이 자주 생겨났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동력직장에 자리잡고있었던 3층 초급당비서실(당시)에서는 2002년 이전에 사업하던 비서들이 나이 60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군 하였다. 10번째 임명된 비서가 사업후 1년만에 임원하게 되자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위험한 수치였다. 그래서 초급당비서사무실을 다른데로 옮기고 해당한 방은 연판으로 둘러막아 방사선을 차단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대대손손 입혀온 방사선피해의 일부이다.

일본!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끓어오르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군 한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조선민족에게 너무나 엄청난 죄악만 늘씌운 적국, 우리와 이웃이 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면서 한사코 대결하는데만 미쳐날뛰는 백년숙적이 다름아닌 바다건너에 있는 일본이다.

다시한번 되새겨본다.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살해한 수는 100여만명, 각종 공사장들과 전쟁터로 끌어간 수는 840만여명이다. 그리고 조선녀성들을 유괴랍치하여 성노예로 전락시킨 수는 20만명이다.

우리는 과거 일본이 조선반도에서 감행한 극악무도한 이 죄악의 력사에 원자탄개발시에 저지른 범죄행위들도 또박또박 청구해놓는다.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다. 대를 이어가며 전해갈것이다. 그리고 기어이 그 모든 죄과를 피로써 결산할것이다.

리 경 수

ㄱ-611726 (정기간행물등록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독자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